

[오늘의 성가] 시작: 59 봉헌: 219 성체: 159 파견: 423



하느님의 은혜를 안다면...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더운 여름날 베짖이는 나무 그늘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비웃지만, 겨울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베짖이는 개미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많은 소출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자는 베짖이가 아닌 개미에 비교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무라십니다. 그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만 믿으며”(시편 52,9) 산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거둔 많은 소출이 하느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농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씨가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한 햇살과 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는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부자들은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 논과 밭을 자기네가 소유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싹 틔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십니다. 자기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거기서 일한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궁핍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부자들의 임무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나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꼬여들어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자식들이 불목하며 친족 간에 분쟁이 벌어진다면, 그 재산을 모으려고 쏟은 “모든 노고와 노심”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제 1 독서) 자신이 거둔 결실과 성공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제 2 독서) 신앙인은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현세적인 것, 곧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버릴 때 가진 바를 흔쾌히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나눔으로 응답하는 신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보다는 돈에 더 희망을 거는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느님이 진정한 주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공지사항

1. 8 월 정기 사목회의가 17 일 미사 후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가톨릭 교회 기도를 알려드립니다 >

식사 전 기도

†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식사 후 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밤은 이미 깊었는데 덧없는 삶을 의미하는 촛불은 돈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가려져서 쌓여 있는 재물과 부자의 얼굴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지 못한 채 돈을 헤아리고 있는 부자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루카 12,20)